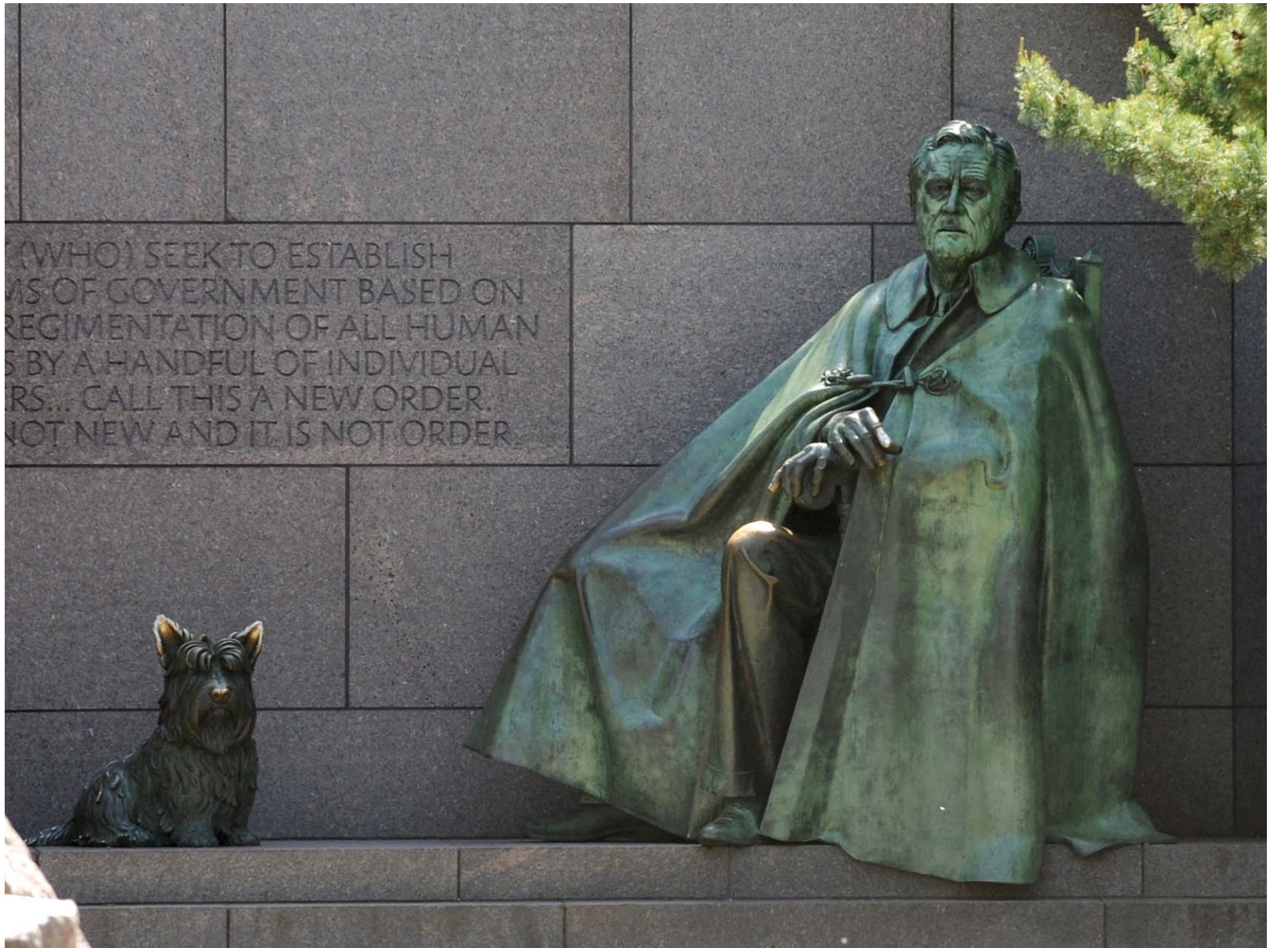




루스벨트 기념관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조각공원을 연상케 한다.



기념관 세번째 방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동상과 애견 팔라. 기념관은 생전 소아마비 장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루스벨트의 뜻에 따라 긴 외투로 휠체어를 가렸다.

/워싱턴 D.C=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국 대통령기념관에서 배운다

‘김대중 기념관’ 글로벌 명소로

〈6〉 프랭클린 루스벨트 기념관

장애·경제 극복 DJ와 비슷...파란만장 삶 파노라마로

워싱턴 D.C=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벚꽃나무거리(Cherry Tree Walk)에 다다른다.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내셔널 몰의 웅장한 건물들과 달리 눈에 확 띄는 랜드마크가 없는(?) 곳이다. 한적한 분위기가 잠시 숨을 돌리며 여유를 즐기 수 있는 장소로 그만이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 1882-1945) 기념관은 인공호수 타이달 베이스와 벚꽃나무거리가 만나는 바로 이곳에 동지를 틀었다. 1997년 문을 연 기념관은 여느 대통령 기념관들의 위용과는 다른 ‘낮은’ 모습이다. 그리스 신전을 본뜬 링컨기념관,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축소한 워싱턴 모뉴먼트, 로마의 판테온을 연상케 하는 제퍼슨 기념관의 화려한 건축미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으로 뉴딜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등의 업적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예우’치고는 너무 소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기념관에 들어서면 ‘보이

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건축철학으로 유명한 조경전문가 로렌스 할프린(Lowrence Halprin)은 기념관의 콘셉트를 ‘이야기가 있는 방’(narrative room)으로 잡았다. 울창한 나무들과 아름다운 호수, 여기에 조각작품들을 적절히 배치시켜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조각공원으로 설계한 것이다.

기념관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임기간 12년(1933-1945)을 4개의 방(전시실)으로 나눠 당시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4개의 방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1기(1932-1936), 2기(1936-1940), 제3기(1940-1944), 제4기(1945-1955) 등으로 구분돼 있다. 각각의 방은 붉은 화강암 벽과 폭포가 어우러진 ‘열린 공간’이다. 특히 폭포는 기념관의 서사적인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형물이다. 관람객들이 첫번째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기면 폭포의 세기가 더 커지고 다이내믹해진다. 이는 경제공황과 세계대전 등의 격변기를 치러야 했던 대통령 재임시절을 한편의 파노라마로 형상화한 것이다.

첫번째 방에서는 그의 취임장면을 재현한 세계적인 조각가 로버트 그레이엄의 부조(浮彫) 작품이

기다린다. 이곳의 폭포는 하나의 거대한 물방울 형상으로 대공황의 도래를 상징한다.

‘사회정책’(Social Policy)으로 명명된 두번째 방은 루스벨트의 두번째 재선 당시 실업급여, 복지, 공정노동기준 등 사회보장제도를 이끈 뉴딜정책에 관한 스토리로 꾸며져 있다. 유명 조각가 조지 시겔(George Segal)의 ‘빵을 기다리는 사람들(Breadline)’, ‘시골부부(Rural Couple)’, ‘노변정담’(Fire-side Chat)’ 등 3점이 전시돼 있다. 대공황의 정점에 달한 1930년대 미국인들의 ‘벼랑끝 일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한다. 노변정담은 당시 라디오를 통해 미국인들의 단합을 호소한 루스벨트의 ‘소통의 리더십’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작품이다.

세번째 방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등 격변과 혼

돈의 시대(The War Years)를 보여주는 공간. 당시의 위기 상황을 거대한 화강암석과 분수의 거센 물줄기로 강렬하게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벽면에는 “나는 부상당한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파괴당하고 어린이들이 배고픔에 허덕이는 모습을 봤다. 나는 전쟁을 증오한다...”는 그의 유명한 연설문이 새겨져 있다. 특히 거센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의 왼쪽에는 휠체어에 탄 3m높이의 루스벨트 동상과 그의 애견 팔라(Fala)의 동상이 나란히 자리해 눈길을 끈다. 조각가 네일 이스턴은 39세때 소아마비로 불구가 됐지만 장애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던 루스벨트의 뜻에 따라 땅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로 휠체어를 감쌌다. 현재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은 단 2장만 남

역사·예술 살아 숨쉬는 조각공원 조성

희망메시지 담아 후손들에 깊은 울림

아 있다. 이 동상은 ‘휠체어 없는 동상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루스벨트대통령 재단측은 지난 2001년 휠체어를 탄 실물크기의 동상을 기념관 입구에 건립했다.

네번째 방은 그의 마지막 일기에서부터 그 이후까지를 담은 평화의 발아기(Seeds of Peace)다. 여기에는 1945년 루스벨트의 장례식을 부조로 제작한 레오나드 바스킨의 작품과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서 퍼스트레이디 동상이 있는 대통령 기념관은 이곳이 유일하다.

루스벨트 기념관은 뉴욕주 알바니의 생가(제9편에서 소개할 예정)와 함께 그의 삶과 업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방문객들은 재임기간의 시대상을 자연과 예술로 승화시킨 ‘엘메이드 조각공원’을 둘러보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되돌아 간 듯한 착각에 빠진다. 특히 기념관 곳곳에 새겨진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등의 희망메시지들은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후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jhark@kwangju.co.kr

신선한 해풍! 게르마늄 황토! 깨끗한 지하수!

무안 황토 양파

무안군
MUAN-GUN